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승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서희원	면담자	조연희			
면담장소	아셀트리	면담지원	최지은			
면담 일시	2022년 9월 21일	회차	1	시간	1시간 13분 2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98					
구술 개요	1976년 인천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항공정비에 관심이 있어 공군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 4년 정도 근무함. 종교적인 이유로 7년 정도 노인 복지 일을 하다가 인천에 올라와서 목공을 시작함. 4년 반 정도 생활 가구를 만들다가 교육을 시작한지는 1년 조금 넘음. 지금은 목공체험과 교육 위주의 일을 하고 있음.					
주요 색인어	공군 부사관, 인테리어, 노인복지, 목공, 100세 시대, 목공 체험, 꿈, 터득, 취미, 교육, 청소년, 노년, 집중, 보람, 성경, 아셀, 트리, 가구, 원데이 클래스, 수영장, 시설 관리, 항공 정비, 출강, 체험 키트, 우드 카빙, 직업병, 노인복지관, 네임밸류, 융합, 경쟁, 어색, 지속 가능성, 활성화, 공중시설, 열악, 화장실, 주차장, 골목, 고상한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00:00:25 ~ 00:01:43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1976년 인천에서 태어남. - 가족은 아내와 딸 둘, 아들 하나로 다섯 가족 - 2011년에 결혼						
2. 목공업1			00:01:43 ~ 00:05:20			
- 승의목공예 마을에서 가장 젊음.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여기 온 건 1년 조금 넘음. - 20대 초반, 공군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전역함. - 처음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업종에서 4년 정도 근무. - 종교적인 이후로 노인 복지쪽 일을 7년 정도 함. - 아내를 만나고 인천에 올라와서 무작정 목공을 시작함. - 노인복지 쪽 일을 하고서 올라왔을 때 뭘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함.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목공을 찾게 됨. - 목공체험과 카페를 접목						
3. 꿈(가족)						00:05:21 ~ 00:07:50
- 어릴 적 꿈은 여우 같은 아내를 만나고 토끼같은 자식 셋만 낳는						

것 -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찾음.		
4. 목공업2		
- 목공기술을 독학함. -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음. - 나중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공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 - 목공을 통해 청소년이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 - 목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병들이 치유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면서 보람을 느낌. -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목공을 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함.	00:07:51~ 00:18:05	
5. 아셀트리1		
- 아셀의 뜻 ‘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 ‘트리’ 라는 영어를 붙여 ‘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나무’ 가 됨. - 아셀트리가 주력하는 목공 분야는 체험, 교육임.	00:18:06~ 00:19:28	
6. 목공 초기		
- 처음에는 생활가구를 만듦. - 지금은 장비를 갖췄지만 예전에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 힘들었음. - 가구는 4년 반 정도 만듦. - 수업을 시작한지는 1년 정도 됨. - 처음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함.	00:19:29~ 00:22:58	
7. 아셀트리2		
- 서울 쪽 수영장 3개 시설 관리중 - 전기, 설비, 목공 두루두루 함. - 20대 초반엔 항공정비에 관심이 있어서 공군부사관이 됨. 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됨. - 제 2의 삶을 찾아 인테리어 공부를 함. - 학교나 문화센터로 목공 외부출강도 나감. - 영상도 만들고 체험키트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생각 - 안전은 조금만 신경쓰면 안 다칠 수 있음. 진짜 신중해야함. -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을 개발함. - 어딜 가든 나무만 보이는 게 직업병 - 교육분야는 크게 활동하지 않는 이상 돈이 안됨. - 늘 목공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듦.	00:22:59~ 00:47:36	
8. 승의목공예마을		
- 집과 가깝고 네임 밸류가 있어서 승의목공예마을로 들어옴. - 다른 장인분들과 융화가 안됨. - 교류할 계기가 별로 없음.	00:47:37~ 01:13:02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들께 전수 받고 싶음.- 센터에서 10월부터 강사로 활동-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중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함.- 뒷골목 쪽은 그대로 살리고 앞쪽은 세대교체되면서 여러 공예분야가 들어오면 좋겠음. | | |
|---|--|--|